



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ansancci.korcham.net) > 새소식 >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

안산 제조기업 26년 2분기 경기전망지수 '41.8', 최근 3년간 역대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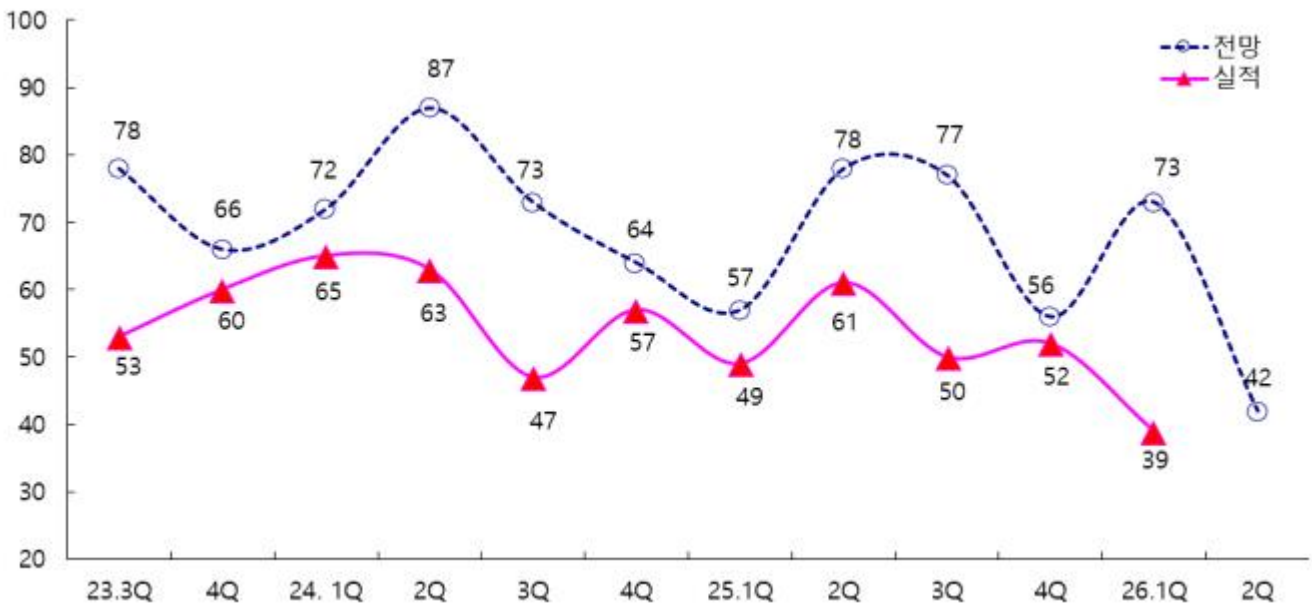
- 전국(76.1)-경기(76.4) 대비 큰 폭 하회...안산지역 기업 체감경기 '급랭'
- 안산기업 상반기 사업실적의 최대 대내외 리스크,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

안산상공회의소가 안산지역 소재 제조기업 141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41.8'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종합 전망지수(76.1)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76.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안산 제조기업의 체감경기 위축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종합)

(단위 %)



※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

세부 업종별로는 운송장비(81), 섬유 의복(75) 업종은 '부진'을 전망했으며, 철강금속(43), 기계설비(36), 전기전자(31), 석유화학(25), 기타(25), 비금속(11), 목재종이(0) 업종은 '침체'를 전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호전', '보합'을 예상한 업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수출수요 둔화(18.1%)', '환율 변동성 확대(13.5%)', '관세 불확실성(11.0%)',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9.9%)', '소비회복 둔화(9.9%)', '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8.2%)', '기타(0.3%)' 순으로 나타났다. (2개 응답)

당초 계획 대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1.7%가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축소·지연(36.9%)', '당초 계획보다 확대(1.4%)' 순으로 응답했다.

투자계획이 축소·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30.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25.0%)', '수요 등 시장 상황 악화(21.2%)', '자금조달 여건 악화(19.2%)', '내부 의사결정 지연(1.9%)', '핵심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부담(1.9%)' 순으로 나타났다.

※ <붙임> 『2026년 2/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보고서』 1부. 끝.